

##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빵 만드는 재능나눔 봉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제과제빵 만들기 'HAPPYRUN엄마의 간식' 간담회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HAPPYRUN엄마의 간식'이라는 제과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나눔을 실천 할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랑나눔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알뜰님봉사단은 '전주 알뜰맘 카페' 육아정보커뮤니티에서 모집된 봉사자들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80명의 알뜰님봉사단에게 향후 교육일정과 봉사활동 일정 등을 공유하였으며, 이번 활동에 재능나눔으로 교육을 진행해주시길 강사님과의 대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알뜰님봉사단 임소형 회장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작은 활동으로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봉사활동에 올해 같이 참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우리 지역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옥 이사장은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재능나눔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지면 그 의미가 더 커지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HAPPYRUN엄마의 간식'이라는 제과제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나눔을 실천 할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랑나눔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의미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장수군 계남면,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수군 계남면에서는 지난 11일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내 주민 76명을 대상으로 계남면에 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이신정 교육강사는 가정폭력 전문강사로 가정폭력예방의 중요성과 피해 발생시 대처법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들에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 성수면 주민자치위, 환경정화 활동

진안군 성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2일 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봄을 맞아 면 소재지 도로와 하천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면민과 성수면을 찾이온 방문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넙킨·레진이트, 스포츠댄스 국선도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노래교실, 웃음치료 및 경락마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 임실군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 섬진강변 걷기행사

임실군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덕치면 내 7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과 함께 '제2회 7080 소풍'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가 주최하는 특화사업으로, 걷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균형과 관절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덕치면 풍물단의 흥겨운 가락으로



행사 시작으로 군보건의료원 통합건강증진팀으로부터 걷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걷기 체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덕치면체육회·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덕치면 여성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이장단 등 자원봉사가 더해져 뜻 깊은 행사가 됐다.

/임실=진홍영기자

###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운동'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지난 11일 진안군 성수면 양회마을에서 농업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운동'을 벌였다.

양회마을은 무진장지사에서 시행한 융좌마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내의 마을로 사무장 및 무진장지사 직원 20여명이 함께 권역 센터에 꽂길을 조성했다.

올해 무진장지사는 주민·지역주도 방식으로 꽂길 조성과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악취 저감 및 미을 환경을 개선하였다.

신교준 지사장은 "아름다운 농어촌 경관을 만들어 국민이 다시 찾고 싶은 우리 농어촌을 만드는 데 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순창경찰,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별 학교폭력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여성청소년계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별 학교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과 일일히 눈높이를 맞추며 맞춤별 학교폭력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학교폭력의 개념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대처방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운동부를 대상으로 교내 선·후배 간 강압적인 행동 지시나 폭행이나 육설 등 없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를 들은 순창중학교 1학년 학생은 "장난으로 한 행동도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난을 하기 전에 친구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서장은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과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경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 임실경찰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녹색어머니 발대식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12일 임실 녹색어머니 회장단과 임실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18년도 임실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과 회장단이 각각 위촉됐으며 전임 녹색연합회장과 유공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녹색어머니 회장단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활동방향과 교통시설 개선 등 다양을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호 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임실경찰과 녹색어머니가 손잡고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 고창경찰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비위예방 실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에서는 각 부서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소통문화 정착으로 직원간 서로 지켜주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비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 의무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관리자 중심 자율적 자정분위기 조성 등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양지구대 1팀(팀장 이창식)의 경우, 비번일에 남사로 습지 산행을 통해 직원간 결속을 다지고 서로 지켜주는 가족이 되자는 결의를 통해 자정분위기 조성을 앞장서고 있다.

김성재 서장은 경찰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경찰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도 높아짐에 따라 자정노력을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범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탈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 이영근**